

<동정자료>

## 김현미 장관 “인구감소 시대에 사람 경쟁력이 강한 환경 조성” 강조 14일 국토연구원 찾아 인구감소 시대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방향 논의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4일(월)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정책이슈를 진단하고, 인구감소지역 전망,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, 주거복지 정책방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.
  -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, 한밭대학교 이상호 교수, 뉴스원 김희준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.
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인구감소가 우리 국토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.”라는 점을 언급하면서,
  - “오늘 논의된 주거, 산업 문제 외에도 인구 감소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, 정치, 경제,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.”고 협력을 강조했다.
- 아울러, “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개개인의 역량이 우수한 ‘사람 경쟁력이 강한’ 국가를 구축해 나가야 하고,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.”라며,
  - “정책방향을 숙고하여 국토철학이 담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줄 것”을 요청했다.

2019. 10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